

# 유자녀 입양가족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Adoptive Mothers with their Biological Children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임경미\*\*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Master : Lim, Gyoung-Mi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periences of adoptive families, mainly focusing on mothers with their biological children and adopted a child,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doptive family's mothers with their biological children according to a criterion-based selection. 15 mothers who adopted children under 12 months, who are currently aged over 6, are selected and given personal and in-depth interviews, questions ranging from the process before adoption, foster care and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to the issues caused by adoption and coping methods. 6 steps of a phenomenological method that Colaizzi(1978) proposed a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entral theme of this study is 'A family which has harmonized with love beyond blood ties'. First, the participants have shown difficulties in different aspects over adoption than those of sterile families. The motive of their adoption is to let adopted children experience a happy childhood in a loving family. Secondly, the participants have adjusted themselves to new adoptive families, have committed to the care of their new children, and have experienced a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s. Finally, adoptive families have successfully been settled while overcoming difficulties together.

---

▲주요어(Key Words) : 유자녀 입양가족(adoptive family with their biological children), 입양아(adopted child), 융화(harmony)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밀입양 문화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입양가족과 입양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 이전의 국내입양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국내입양

의 실태파악이나 입양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입양사후관리서비스의 실태파악과 문제점지적 및 개선점을 제안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배태순, 1993, 1998; 이은경, 2001; 정맹진, 2002; 최진희, 2003; 허명순, 2003). 그러나 공개입양가정의 자조모임 단체인 한국입양홍보회의 설립으로 공개입양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2000년 이후로 공개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입양가족 및 입양부모의 적응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들(구미향,

---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임경미 (E-mail : soriel6@hanmail.net)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2006; 권지성, 2004; 변미희 · 정혜선, 2006; 송희연, 2005; 안재진, 2008; 윤현선, 2001; 조효정, 2008; 한동수, 2001; 황재필, 2005)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입양가족의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탐색된 '가족의 적응과정' 연구이거나 입양부모의 양육 경험 및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에 해당될 뿐이었다. 또한 입양가족에 대한 접근과 표본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입양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소수의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구미향, 2006; 권지성, 2003; 박경련, 2007)였기에 입양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다.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권지성 등, 2008)의 연구에서 입양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것 외에는 연령을 제한한 질적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입양아는 발달주기에 따라 입양됨의 의미를 다르게 인지하고 입양과 관련된 과업에 대처하기 때문에 입양가족 또한 입양아의 발달주기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입양아의 연령을 제한하여 입양가족의 적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07)에 의하면 2007년 2,652명 중 국내 1,388명, 국외 1,264명으로 국내입양이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앞질렀다. 국내입양의 증가는 2007년도에 시행된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으로 입양휴가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의 제도적 지원과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 편, 국내입양의 증가와 함께 최근에 선진국형 입양형태인 유자녀가정의 입양 즉, 친생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다. 과거 불임가정에서 가계의 대를 잇기 위해 입양이 행해지던 것과 달리,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아이를 위한 관점에서 입양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9년도에 입양한 1,314가정 가운데 유자녀가정이 453가정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기존의 입양가족의 적응에 대한 국내연구들(권지성, 2004; 박경련, 2007; 변미희 · 백정숙 2001; 송희연, 2005; 조효정, 2008)에서는 입양부모의 특성에 따라 불임 입양가족과 유자녀 입양가족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현정(2001)의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에서 입양형태의 일부분으로 입양부모의 특성을 포함하여 구분을 하였다. 친생자가 있는 가정은 불임가정의 입양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친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입양반대로 인한 어려움과 친생자와 입양아와의 양육경험의 차이를 느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대중매체에서는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유자녀 입양가족을 선정하여 입양아 양육에 관한 성공적인 면만을 보여주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의 입양아 양육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혈연중심의 문화와 '입양아는 친생자와 다

르다'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친생자가 있는 가정의 입양아 양육경험은 어려움이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친생자와 함께 입양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을 중심으로 유자녀 입양가족의 입양과정, 입양 자녀의 양육과정,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의 변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처법에 대해 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자녀 입양가족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바람직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함께 입양가족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 연구의 '확률적 표집(Probabilistic sampling)'과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한다(이용숙 · 김영천, 1998).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친생자가 있는 입양가족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불임 입양가족과는 다르게 아동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친생자와 함께 입양아를 양육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통해 입양아 양육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양가족의 구성원 중 양육에 집중을 하며 가족의 적응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어머니의 관점을 통해 입양가족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둘째, 입양아를 신생아기(0~12개월)에 입양한 가족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Rosenberg(1992/2007)는 입양 직후 양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아동과의 애착관계 형성을 강조하였다. Brodzinsky(1990)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형성의 중요기인 신생아기(0~12개월)에 입양된 아이를 선정하였다. 셋째, 자료수집 시 입양아가 아동기(만 6세~12세)의 발달단계인 입양가족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그렇게 선정된 이유는 기존 연구들에서 입양아가 경험하는 입양됨의 의미가 만6세를 전후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동기인 만6세~12세는 '입양됨'의 의미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이 시기에 입양아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또한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청소년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초기개입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번호	연령(만)	직업	입양기관	입양아 입양당시 연령(만)	입양아 연령(성별)	입양부 연령(만)	입양부 직업	형제 관계	월 평균 가계소득
1	43세	주부	대한 사회 복지회	6개월	만 6세(여)	44세	연구원	첫째:아들(만14세,친자녀) 둘째:아들(만10세,친자녀) 셋째:딸(만6세,입양아)	500~600만원
2	52세	주부	홀트 아동 복지회	1개월	만 9세(여)	46세	사무직	첫째:아들(만28세,친자녀) 둘째:딸(만22세,친자녀) 셋째:딸(만9세,입양아) 넷째:딸(만8세,입양아) 다섯째:아들(만3세,입양아)	100만원 미만
3	44세	주부	대한 사회 복지회	1개월	만 8세(여)	49세	사무직	첫째:아들(만17세,친자녀) 둘째:아들(만15세,친자녀) 셋째:딸(만8세,입양아)	500~600만원
4	47세	주부	홀트 아동 복지회	2개월	만 11세(여)	47세	사무직	첫째:아들(만20세,친자녀) 둘째:딸(만11세,입양아) 셋째:딸(만10세,입양아)	400~500만원
5	48세	주부	성가정 입양원	12개월	만 9세(여)	50세	자영업	첫째:아들(만18세,친자녀) 둘째:딸(만9세,입양아) 셋째:딸(만6세,입양아) 넷째:아들(만4세,입양아)	500~600만원
6	54세	주부	성가정 입양원	3개월	만 11세(남)	63세	선장	첫째:딸(만32세,친자녀) 둘째:딸(만30세,친자녀) 셋째:딸(만27세,친자녀) 넷째:아들(만11세,입양아)	400~500만원
7	47세	주부	희망원	11개월	만 7세(여)	45세	전문직	첫째:아들(만15세,친자녀) 둘째:아들(만12세,친자녀) 셋째:딸(만7세,입양아) 넷째:딸(만4세,입양아)	600만원 이상
8	53세	사무직	대한 사회 복지회	6개월	만 9세(여)	54세	자영업	첫째:아들(만29세,친자녀) 둘째:아들(만26세,입양아) 셋째:아들(만19세,입양아) 넷째:아들(만18세,입양아) 다섯째:아들(만17세,입양아) 여섯째:아들(만13세,입양아) 일곱째:딸(만9세,입양아) 여덟째:딸(만8세,입양아)	600만원 이상
9	41세	주부	성가정 입양원	6개월	만 7세(여)	44세	목사	첫째:아들(만11세,친자녀) 둘째:아들(만7세,입양아) 셋째:딸(만4세,입양아)	200~300만원
10	38세	주부	홀트 아동 복지회	1개월	만 6세(여)	45세	사무직	첫째:아들(만13세,친자녀) 둘째:딸(만6세,입양아) 셋째:딸(만2세,입양아)	400~500만원
11	53세	주부	대한 사회 복지회	21일	만 7세(여)	57세	공무원	첫째:아들(만24세,친자녀) 둘째:아들(만21세,친자녀) 셋째:딸(만7세,입양아동) 넷째:딸(만6세,입양아동)	300~400만원
12	44세	주부	성가정 입양원	9개월	만 9세(여)	45세	목사	첫째:아들(만14세,친자녀) 둘째:딸(만9세,입양아) 셋째:딸(만6세,입양아)	200~300만원

&lt;표 1&gt; 계속

번호	연령 (만)	직업	입양기관	입양아 입양당시 연령(만)	입양아 연령(성별)	입양부 연령(만)	입양부 직업	형제 관계	월 평균 가계소득
13	55세	주부	대한 사회 복지회	7개월	만 8세(남)	57세	자영업	첫째:딸(만32세,친자녀) 둘째:딸(만29세,친자녀) 셋째:아들(만10세,입양아) 넷째:딸(만10세,입양아) 다섯째:아들(만8세,입양아)	300~400 만원
14	51세	주부	홀트 아동 복지회	19일	만 7세(여)	50세	전문직	첫째:아들(만22세,친자녀) 둘째:아들(만20세,친자녀) 셋째:딸(만7세,입양아) 넷째:딸(만5세,입양아)	400~500 만원
15	47세	주부	대한 사회 복지회	40일	만 10세(여)	46세	사무직	첫째:딸(만20세,친자녀) 둘째:딸(만10세,입양아)	400~500 만원

##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본조사 실시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 준거 및 면접내용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참여자 준거에 부합하는 두 명을 선정하여 면접을 하였다. 면접내용은 입양과정, 입양자녀의 양육과정,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의 변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처법 등의 개방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면접에서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나타난 다양한 차원에 따라 연구자의 능력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참여자의 준거와 면접내용은 연구주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심층면접 질문과 사회인구학적 정보지, 연구참여동의서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격적으로 참여자 모집을 위한 자료수집은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접횟수는 1회이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연구자는 현장노트(Field note)를 기록하였다. 현장노트에는 중요한 단서와 내용, 면접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전체의 느낌, 의문점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솔직한 감정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부족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전화연락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기와 MP3를 이용하여 녹취한 후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녹음파일을 듣고 그대로 받아 적어 내려가는 전사(Transcription)작업을 하였다.

자료수집이 면대 면으로 만나는 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됨에 따라 연구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면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

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동의서에 한 장은 연구참여자가, 한 장은 연구자가 서명하여 각각 동의서를 한 장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로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면담상황을 떠올리면서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주의하면서 녹취록을 수차례 읽었다. 2단계로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입양경험과 관련된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각 진술들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는 것에 몰두하여 반복해서 읽은 뒤에, 연구참여자의 표현에서 연구참여자가 의미하는 것으로 도약해서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4단계는 각각의 원자료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한 후 의미들을 주제별로 조직하였다. 5단계는 선행단계를 통해 입양에 대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히 기술하였다. 6단계는 가능한 한 5단계의 진술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입양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7단계는 주제로 밝혀진 것을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연구자가 생각한 주제의 본질이 연구참여자가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3인에게 연구결과로 본질이 제대로 추출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밟았다.

## 4. 연구의 타당성

질적 연구에서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기위해 연구의 엄격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출처를

통한 다원화를 사용하였다. 면접을 한 후에 즉시 면접내용, 느낌과 이상한 점 등을 기록하였고, 입양에 관련된 정책포럼 참여와 입양가족모임참가, 입양관련 서적과 방송참고, 입양기관 직원면접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동료연구자들의 조언 및 지지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생각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갈 수 있게 하였다. 아동복지 전공 석사과정 수료생 중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3인이 자료수집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확인 작업과 범주화 및 주제 도출에 있어 원자료에 입각하여 의미있는 재구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걸쳐 조언을 해주었다. 이는 감시 및 평가기제로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장치가 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많은 것들이 연구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귀기울여 들어주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현장연구와 자료분석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을 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중 임의로 2명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결과 확인을 부탁하였으며, 참여자 확인을 통해 결과를 수정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넷째,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감사자료 남기기는 자료수집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전반에 있어 되도록 모든 생각과 느낌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노트, 녹음자료, 전사본, 분석자료 등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기록으로 남겼다.

### III. 연구결과

Colaizzi의 분석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개의 주제와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33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융화된 가족'이라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 1. 입양을 결정하기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결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1) 입양동기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입양을 접하게 되었고,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입양에 관련된 TV프로그램과 신문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5, 7, 8, 10, 14) 입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사람의 성공적인 입양경험 공개(#9, 12)를 통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졌다. 또한 고아원봉사(#1, 2, 4)와 위탁모경험(#6, 11, 15)을 통해 요보호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입양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TV 다큐에서 홀트 여사의 일대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모든 아이들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입양에 대해서 언젠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7)

위탁모 구하는 광고가 늘 실려져 있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며칠 있다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내자마자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인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뭐 성별구별을 하면 아이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 아이가 우리 아들이예요. (#6)

참여자들의 입양의 목적은 요보호 아동에게 부모의 사랑과 가족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불임가족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아동을 위함이었다. 따라서 유자녀 입양가족은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입양을 염두에 두었고 혈액형이나 신체조건 등의 일치를 상관하지 않고 입양을 하였다. 또한 이들 중 네 명은(#1, 2, 12, 13) 건강이 의심되어 입양이 연기되거나, 친권이 상실되지 않아서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를 원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없는 애를 생각하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부모가 없어서 저렇게 뭐 시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막 저리고 소름끼칠 정도로 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게. (#5)

우리가 아이를 원할 때는 성별을 굳이 따지지는 않고 혈액형도 따지지 않고, 단지 국내나 해외나 입양을 꺼려해서 못가는 아이를 원했거든요. 내가 입양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아이를 위함이잖아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한 입양을 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 시설에서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아이를 위한 입양이었으니까. (#13)

<표 2> 유자녀 입양가족 어머니의 양육경험

개 념(의미단위)	하위범주	범 주	주 제
입양을 접하게 된 배경 입양의 목적	입양동기		
경제적 문제 주변의 반대	입양선택의 어려움	입양을 결정하기	
부모자격심사 입양수수료 입양아에 대한 정보부족 기관의 태도	공식적 입양절차		
초기적응의 어려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애착관계의 형성		
자녀양육에 전념 자녀양육의 기쁨 친생자와 동일함 입양아의 알권리 존중	입양자녀의 양육		
돈독해진 부부관계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부부관계의 변화	입양가족으로 적응하기	
친밀한 형제애 형성 친생자의 성숙 입양자녀를 위한 재 입양	형제관계의 변화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융화된 가족'
반대에서 격려로 변함 가족원으로 인정함	확대가족관계의 변화		
장애발생에 대한 불안함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의 아픔 정체성 혼란에 대한 걱정 입양성공에 대한 부담감 입양공개에 난처함 또래관계에서의 상처	입양가족이 겪는 어려움	입양가족의 어려움 극복하기	
긍정적인 생각과 결단 입양아에 대한 신뢰 입양아의 높은 자존감 입양가족모임 가족의 결속력 타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		

2) 입양선택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중 아홉 명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입양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 중 세 명(#5, 6, 12)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를 부양함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져 입양을 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유자녀 가족의 입양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입양을 한다'는 편견과는 다른 결과이다.

친생자가 있는 입양가족은 입양에 대한 주변의 반대로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양가부모와 친척들, 지인들은 혈연주의 사회에서 출산을 통한 가족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근거하여 입양에 대해 반대한다. 참여자들 중 열세 명은 양가부모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그들의 확실한 허락 없이 입양을

하였고, 이들 중 세 명은(#3, 6, 12) 처음부터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입양을 하였다.

입양수수료라는 게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 때 우리는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그 달 살기 바빴는데 목돈 뭐 저금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목돈을 마련할 길도 없을 시기였는데 입양수수료가 그 때 돈으로 만만치 않았었는데 뭐 한 열 달치 월급을 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14)

엄마는 처음에는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엄마가 종갓집 종부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너무 하셔서 "핏줄이 어머니, 뭐 키워봤자 나중에 피가 다른데 어떻게 할래,

나중에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래.” 텔레비전에서 보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으시니까. (#10)

### 3) 공식적인 입양절차

참여자들은 엄격한 부모자격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친생자가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1:1면담을 통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입양에 동의해야만 입양을 할 수 있었다. 기관에서 엄격하게 입양가정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입양아를 위해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요보호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가정을 찾아주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입양 할 때도 입양기관에 다 같이 가서하고 입양 기관에서도 물어봐요. 그 자녀들 의견을 다 물어봐요. 따로따로 면담해요. 1:1로. 한 쪽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재산 조사하고 취업 되어 있는 취업 증명서. 그 다음 봉급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세금 낸 거 이런 거. (#4)

입양수수료는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선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참여자들은 입양을 하기 위해 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으며 마치 돈을 내고 아이를 사오는 것 같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다.

기분 나쁘지. 우리는 당장 아기가 오면 육아를 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 기다가 또 입양기관에 돈을 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오는 느낌. (#9)

입양모는 입양아의 출생배경과 친생부모에 대해 알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입양을 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친생부모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개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아의 좋지 않은 정보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함으로써 입양부모가 갖게 될 두려움을 걱정하며 알려주지 않았다.

그 당시 정보 알려달라니까 말로만 좀 해주고, 서류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해줬는데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거의 다 속인다고 보면 되요. 거의 다 엄마 키가 165구요. 입양 애들 서류를 보면 저처럼 키가 140이다 이러면 입양안 해가죠. 난쟁이 일까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입양이 되지. (#2)

연구참여자들이 입양할 당시에는 불임가정의 비밀입양이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친생자가 있는 가정의 입양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다. 실제로 참여자들 중 네 명은(#3, 9, 12, 13) 입양기관에서 친생자와 입양아 차별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입양을 허락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입양기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전도사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들 있는 집에 쉽게 딸 안주고 그랬어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15년 전만해도 까다롭고 보수적이었어요. 지금 있는 아들이나 잘 키우라고 입양기관에서 그랬어요. (#12)

## 2. 입양가족으로 적응하기

입양모는 입양아와 애착을 형성한다. 이들은 입양아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후에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며 입양가족으로 적응해 간다.

### 1) 애착관계의 형성

입양모는 입양아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내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서 오는 낯설음의 양가 감정을 경험한다. 또한 복지나 위탁모와 함께 있었던 입양아는 낯선 환경과 양육자의 교체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껴 쉬지 않고 울며 잠을 자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안타까움과 양육의 힘들음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은 이미 친생자를 낳아서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입양모에게 더욱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첫 날은 저녁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파티를 하고 이랬는데. 그날 한 9시 정도 되니까 애기가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울더라고요. 잘 놀다가 누군가를 찾는 거 같은 눈빛이라서 업고 골목에서 서성거리려도 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죠. 누군가를 찾는데 애를 돌보던 위탁모 일수도 있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너무 당혹스러워서 자극적이게 울고 그랬었는데. (#8)

너무 밤에 울고 그래서 저도 울고 애 울면 저도 성질나서 울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이후에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애기가 오면 환경이 바뀌고 애기도 그걸 안대요. 자기를 한 달 동안 키워왔던 위탁모에게서 떨어진 느낌. 자기를 낳아준 거랑 다른 느낌.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애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1년 동안은 그렇게 잠을 안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의 중년기 여성인 입양모는 신생아를 양육함에 체력적인 어려움을 느끼지만 입양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위해 오랜 시간을 밀착하여 함께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입양아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표정과 행동이 사랑스럽게 변한다.

우리 애는 기관에서 6개월을 혼자 컸기 때문에 남편하고 나 사이에서 재웠어요. 언제까지 재웠나하면 5세까지는 내 배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잤어요. 00가 오고 갑자기 해외발령을 받아서 이태리와 영국에서 살다왔어요. 가족이 다 갔지. 그런데 거기 놀이방도 없고 친정집도 없고. 내가 죽으나 사나 애를 데리고 다니며 키웠어요. (#1)

애가 표정이 없었죠. 울지도 않고 잠에서 깨도 어두운 데서 혼자 놀고 있어요. 너무 안쓰러웠죠. 자라 그러고 하면 혼자 있고. 보통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깐 그런 게 없죠. 완전히 바뀌죠. 안아주고, 항상 같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그러니깐 표정도 돌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7)

## 2) 입양자녀의 양육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친생자를 키울 때는 직장도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육아를 맡기기도 하였지만(#1, 2, 4, 5, 6, 9, 12), 입양아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쏟으며 양육에 전념한다. 입양아의 발달과 성장에 따른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입양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이는 친생자와 달리 입양아는 입양으로 인한 특수한 발달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시설에 있었을 수도 있고, 더 훌륭하고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었으니깐, 이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정말 사랑의 감정이 생겨서 편안하고 포근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책 보고, 대화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 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6)

희생이나 물질 투자를 안 하고 대충 키웠을 때, 나는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운다. 고아원보단 가정이 낫지. 이런 생각으로 키운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친자 이상으로 전 위에 두 아이들은 알아서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키웠어요. (#2)

입양모는 입양아로 인해 삶의 활력과 재미를 느낀다. 또한 이들은 입양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입양아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 이들에게 입양아는 친생자가 성장한 후 태어난 늦둥이와 같이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 중 입양아가 학령기 후기에 접어들면서(#4, 6, 15) 부모 자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입양아의 학습문제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혼혹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 입양아는 감정적으로 대항하며 입양을 내세워 자신이 상처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입양모는 혹시라도 입양아가 친생자와의 차별을 느끼거나 친생부모를 그리워하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한다.

그냥 나는 엄마가 되고 그 아이는 내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분유도 먹이고. 그냥 내가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애기가 하나 왔다는 게 이제 달라진 거지. 애기가 생겼다는 거 그게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활력이 되고 화제가 되고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9)

저랑 충돌이 있을 때 낳아준 부모에게 가고 싶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엄마가 밍다고 더 해요. 그럴 때는 못해줘서 그런가 반성도 되고.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입양아]는 한 대만 때려도 더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게 있어요. 아무래도 똑같이 그런다 해도 애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신경은 쓰이면서. 똑같이 키운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점도 있어요. (#15)

입양모는 애착형성과 신생아기부터 아동기까지 함께 한 시간을 통해 입양아는 친생자와 똑같은 내 자식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입양에 관한 면접이나 취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입양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친생자와 달리 입양아를 양육할 때의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자신의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 중 다섯 가족은(#2, 5, 7, 8, 13) 첫 입양에서 신생아 입양을 하였지만 재 입양을 하였을 때 연장아를 입양한 가족도 있었다. 이들은 신생아 입양과 연장아 입양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장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애착형성의 어려움을 가지며 이러한 어려움이 입양아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위에서 이들의 힘든 양육과정을 보며 파악하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2). 입양아가 연장아가 되기 전에 입양되는 것이 입양의 성공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냥 내 새끼니까 평상시는 그런 생각 안하지. 가끔 이런 시간들이 오면 다시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입양을 했지. 우리 아이랑 나는 입양한 부모와 자식관계구나 이렇게 하지. 근데 다른 일반 집들 자식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살갑게 키우는 집도 드문 거 같아. (#9)

큰 아이들[친생자]하고 이 아이들[신생아입양아]하고 기르면서 한 번도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다를 수가 없어요. 두 남자 아이는 신생아 때부터 키워 와서 밀착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애착이 잘 되서 그러는지 전혀 입양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연장아]딸아이는 안 그러더니 시간이 한 참 지나서 조금씩. 00이, 8살에 온 아이는 입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3)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은 모두 공개입양가족이다. 입양아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입양이 된 이유와 생모에 대해 공개하며 ‘뿌리 찾기’를 도와준다. 입양아는 학령전기가 되어 기존에 알던 입양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게 되면서 생모를 궁금해 하며 찾기를 원한다. 그러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입양가족의 도움은 입양아에게 생모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알려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입양아가 원하면 생모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입양아의 뿌리 찾기가 진행되는 동안 입양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아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불임 입양가족처럼 입양아를 생모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크지는 않지만, 입양아가 생모를 궁금해 하고 찾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 중 현재 입양아가 생모를 찾는 것을 도와준 가족은 다섯 가족뿐이었다(#4, 8, 12, 13, 15). 그 중 한 가족(#12)만이 생모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다.

애가 크면 그러니까 애 어릴 때부터 입양되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내 뿌리가 뭔가 이런 것을 알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도 당연히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궁금할 거고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서 태어났나 궁금할 텐데 그걸 나중에 숨기면 애가 나중에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나중에 엄마를 찾아줘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궁금해 할 때 만약에 만나게 해줄 수 있으면 만나게 해줘야지. (#10)

자기 생모가 왜 나를 못 길렀는지 자기 생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모를 찾아

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긴 찾았는데 그 쪽에서 생모가 처음 입양했을 때 들었던 것과 너무 정 반대에 가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뭐 언제든지 아이가 궁금해 하고 찾기를 원하면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3)

### 3) 부부관계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입양을 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불평이 많았는데, 입양 후에 입양아로 인해 남편이 일찍 귀가를 하고 가정에 집중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진다. 또한 부부가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갖게 되어 서로에게 동반자로서 힘이 되어준다.

입양모는 중년기가 되어 신생아를 입양하였기에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자발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내 입으로 굳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6시에서 7시만 되면 들어오더라고요 집으로. 00이가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석처럼 꼭 끌어당기듯이 아빠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니 알아서들 딱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들 일이 없죠. 돈독해지죠. (#5)

아빠가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집안 일 도와주면 큰일 난줄 알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아이들 입양하면서 제가 등치만 켜지 빌빌되는 사람이라 애들 데리고 씨름하는 이런 것을 남편이 보니까 안되었거든. 집에 청소도 도와주고 아이들 목욕시키는 것은 맡아서 해주고. 그런 면에서 아빠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가정적인 면들이. (#13)

### 4) 형제관계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친생자와 입양아 간에 부모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한다. ‘내리사랑’으로 입양부모와 나이가 많은 친생자는 자연스럽게 입양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또한 친생자는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발달주기(청소년기, 성년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입양부모는 더욱 입양아에게 집중하게 된다.

친생자와 입양아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형제간의 관계의 갈등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는 친생자가 입양아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는 부정적인 가정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참여자들 중 입양당시 친생자의 나이가 유아기시기이며, 친생자와 입양아의 연령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

(#9, #10, #12)에는 친생자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입양아에게 집중되는 것에 소외감을 느끼며 퇴행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입양부모는 소홀했던 친생자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를 회복한다.

뒤 아들[친생자] 키우다가 이 애를 입양해 키우니까 00가 더 예쁜 거야. 내리 사랑이라고 아들도 00한테 빠져 가지고 자기가 다 키우다시피 한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다 안아주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걷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애 따라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자기가 매일 땀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놀이터 데리고 나가고. 저는 한 개도 힘든지 몰랐어요. 재 키울 때 애가 너무 많이 바뀌가지고. (#4)

첫째 애[친생자]한테. 애는 이제 첫째니까 너는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미안한데. 그냥 동생을 너무 예뻐하고 그래서 그냥 다 애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입양아]한테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뺏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0는 내색도 안 해서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 줄 알았더니 동생이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가 컸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친생자] 더 많이 안아주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고, 니가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철썩 같이 믿고 있어요. (#10)

입양모는 입양가족으로서의 삶이 친생자에게 좋은 교육이 되어 가치관이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친생자는 나이차이가 많은 입양아의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을 한다. 친생자는 입양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입양아가 행복해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기에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이들 중에 미래에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2, 3, 7, 14).

입양가족 중 열 한 가족은 입양으로 인해 느낀 기쁨과 함께 입양아에게 힘이 되는 동지를 만들어 주기위해 재 입양을 하였다. 입양아와 친생자가 나이차이가 많고, 친생자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양아가 겪게 될 외로움을 걱정하여 재 입양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양아들끼리 서로 의지를 하며 애뜻한 관계를 형성한다.

입양하고 나서 다른 애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많이 달려졌고, 엄마 아빠가 더 입양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할 거니까 엄마 아빠는 그만 하라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 때 입양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14)

한 명 더 키우고 싶다. 애기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00를 생각하니 오빠는 저도 오빠가 있지만 언니들하고 더 긴밀하게 연락하고 잘 지내고 새언니가 생기면 사실은 오빠가 멀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00이랑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동지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다. 00도 입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둘이 너무 잘 놀고. (#10)

### 5) 확대가족관계의 변화

확대가족은 전통적으로 핏줄을 중요시하는 혈연주의 문화와 입양아로 인해 육체적·정서적으로 고생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입양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반대를 하며 편견을 가졌던 확대가족들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대하는 태도와 입양가족의 화목한 삶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확대가족이 입양아와 친생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입양초기에 확대가족은 입양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냉대를 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견이 없어지고 입양아를 한 가족으로 인정하였다.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애 낳을 능력도 있으면서 낳아서 기르면 되지, 왜 남의 자식 키우느냐.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뭐 막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사실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두 분 돌아가시고 애네 둘이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형제들 관계도 좋아졌어요. (#14)

그런데 처음에 좀 그런 게 미묘하게 있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가끔 안부를 물어요. 그럼 우리 00는 이러이러한 거 잘한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하는 애가 없는데 그런 애가 하나 있으니 너무 좋다하시면서 예뻐하세요. (#9)

### 3. 입양가족의 어려움 극복하기

입양가족의 어려움은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까지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어 있지만, 회피하지 않고 가족의 결속과 입양아의 건강한 자아정체감으로 극복해 나간다. 입양가족의 어려움과 극복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입양가족이 겪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입양아의 장애발생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 이들은 친생자의 출산과 양육경험으로 인해 태내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입양

아의 친생부모인 미혼모가 열악한 태내환경을 가졌던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또한 입양부모는 친생자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입양아로 인해 양육의 힘들음을 느끼고,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유전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갖는다. 실제로 입양아가 성장하면서 기질적 문제로 인한 ADHD(#6, 13)가 발생하였고, 유전적 장애인 각화증(#2)과 원시(#7)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 두 번째 입양아에게서 신생아기 이후에 중증장애가 발병되기도 하였다(#2, 4). 이들은 입양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입양아가 자라면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에 대한 불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미혼모들이 임신 기간에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마음껏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일단 다들 임신한 것조차도 거의 비밀로 하고 본인들도 나중에 서야 임신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아들이 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계속 아이를 축복하고 반기고 기다려야 하는데 대부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이 많지 않을까. (#9)

그래서 저는 인제 1년이 있어야 발병이 되는 그런 큰 병들도 있잖아요. 우리 딸 굉장히 얘기 때도 좀 늦게 걷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약해서 늦게 걸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몸이 튼튼하면 빨리 걸을 수 있는데, 15개월? 14~15개월 차에 걷기 시작했어요. 애가 걸을 때까지 제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혹시나 그런 어떤 속에 들어있는 병이 발병하게 될까봐. (#3)

입양아는 성장을 하면서 7, 8세가 되었을 때 ‘입양’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이는 자신과 입양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친생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입양모는 입양아가 자신을 낳아 준 생모에 대해 궁금해 하고, 찾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인해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여서 입양아가 생모를 찾는 건 아닐까하고 걱정을 하며 서운함을 가진다. 그러나 생모를 찾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슬퍼하는 입양아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한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가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어요. 꿈에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막 찾았대요.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엄마 인제 있으니까 됐네.” 하고 끌어안아 줬는데, “아니 엄마 말고 낳아준 엄마. 한 번도 못 봐서 너무나

무 슬퍼” 아이가 울먹여서, 가슴이 미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채워 줄 수 없으니깐. (#6)

좀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울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달래주기 힘들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서 울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낳아주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낳아주신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제일 많고, 00이가 제일 처음 울었을 때는 막 울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14)

입양모는 입양아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에 대해 걱정한다. 입양아가 성장해가면서 입양됨을 인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입양으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사람 일은 모르고, 저도 제가 인제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하고서 마음의 무장을 풀지 않고 하고 싶기는 한데요. 사춘기 때 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다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3)

저는 00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입양된 것에 대해서 많이 방황 안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처야 되겠죠. 거처 가겠지만, 정체성을 찾을 때 많이 고민하지 않고. (#7)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을 위해 입양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입양아를 양육하면서 친생자와 달리 입양부모와 전혀 다른 입양아의 기질을 알게 되고 문제행동을 경험한다. 또한 주변에 입양을 공개하였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 이로 인해 입양아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각도 있지만, 내 자신이 아이를 어떻게 완성해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애는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야. 나와 다른 기질을, 미지의 기질이잖아요. 애 부모에 대해선 몇 자 적어준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른 애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이성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개한테 맞춰서 그것을 잘 가꿔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요. (#11)

제가 처음에 00이를 입양하고 나서 너무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양아는 당연히 다르게 키워져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첫째[친생자]랑은 다르게 키워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10)

공개입양가족인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입양을 공개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쩌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입양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불가피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다. 그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으로 인해 난처함을 느낀다. 이들은 입양을 공개하는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양공개로 인한 어려움을 종종 느낀다. 입양모는 학기 초 학부모 모임에서 입양에 대한 좋은 점을 알려주고 입양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부탁을 하지만 입양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입양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외국에 살면 보통 이런 말을 잘해요. 처음 만나니까 거기서는 아들 둘을 낳고 키우다가 느지막이 또 아들을 낳았으면 망한 건데 딸을 낳아서 너무 기뻐했다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00입양했다고. 그럴 때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만난 그런 상황처럼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도 있고, 또 부자연스럽게 앞뒤 안 맞는데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1)

내가 모임에서 엄마들한테 입양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입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듣는 순간 헉 하고 질문도 못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 그때부터 놀라서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딸 입양 했어요 안하기로 했어. 그냥 안하기로. (#11)

학령기인 입양아는 학교에서 입양을 당당하게 공개하였지만 짓궂은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입양모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입양아를 보며 함께 아파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놀리는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만 11세로 5학년인 입양아(#4, 6)는 가까운 친구를 제외하고는 입양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애들이 너 버려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당해요. 놀려요 애들이 모르니까. 부모들이 말 잘못해서 그렇겠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조금씩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속으로 같이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애가 너무 그렇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거 받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2)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했대요.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너네엄마 가짜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아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6)

## 2)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

입양모는 긍정적인 생각과 결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입양아의 장애발생에 대한 불안함을 친생자를 키워본 경험에 빚대어 친생자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며 운명으로 여긴다. 또한 입양아의 정체성 혼란과 방황의 시기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그런 거는 뭐랄까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은 못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어요. 보통 입양 부모들이 다 그래요 내가 낳아도 다운증후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낳아도 건강이나 성별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권해주는 애 웬만하면 받아요. (#1)

그 출생 자체부터 그런 상태로 왔으니까 그게 쯤 우려가 된다는 건데, 또 내 생각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꾸 그런 우려를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개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염력으로 기운으로 가거든요. (#11)

입양모는 입양아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정서적 독립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가올 어려움을 부모 자녀간의 애착형성과 입양아에 대한 신뢰로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학령기 후기에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아는 생모에 대한 궁금함이나 그리움을 생모에게 편지를 쓰거나 일기로 표현한다. 참여자들은 입양아의 진심이 담긴 일기의 내용과 생모에게 쓴 편지에 나타나는 입양부모에 대한 사랑표현을 통해 입양아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저는 우리가 애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로서 100% 받아 들였고, 우리는 애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빗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4)

작년에 제가 혼내면서 때렸어요. 경찰에 신고한대요. 가서 신고하라고.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한두 대 때렸다고 자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다고. 그러니깐 안간대요. 나중에 자기 낳아준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지금 엄마한테 너무 죄를 졌대요. 너무 죄송하다고. 낳아준 엄마한테 지금 엄마가 좋다고. 그렇게 편지 쓴 걸 제가 봤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15)

입양모는 입양아가 입양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밝고 당당하게 자라길 기대한다. 이들은 입양아에게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주기 위한 노력으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 입양아의 생각을 지지해주며, 애정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한다.

우리아이에게 당당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티븐 모리스 아시죠? 입양아지만 사회적으로 유명인사고, 저도 우리 00한테 스티븐 모리스처럼 되라고 해요. 자기의 약점이 자기 인생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잘못하거나 선택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2)

학교에서 놀리고 '너 버려졌데.' 그런 건 충격을 받지만, 충격이 일시적이지 그걸로 막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연구참여자들 중 열네 명이 모임의 형태는 다르지만 입양가족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입양관련 스티디와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역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아의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입양기관에서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속력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양가족모임을 통해 입양모는 양육의 힘들음 나눔으로 위로 받고 재충전을 한다. 입양아들은 서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입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동지가 되어 정신적으로 의지가 된다.

너무 입양부모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입양을 했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애를 낳아도 친자도 어찌 키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입양부모들이 앞서서 미국의 입양 사례도 많이 읽고 우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1)

입양 모임은 제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아이들 기르면서 힘이 안 든다고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은 입양이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잖아요. 갈급하고 목마를 때 그래도 그 모임을 하고나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16)

입양가족은 입양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며 결속한다. 이들은 입양아와 신생아기부터 아동기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다. 그리고 입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족 전체가 함께 결속하여 극복한다. 이로 인해 끈끈한 가족애를 경험하며 사랑으로 융화된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00한테 그냥 그거는 너한테 있는 일이고, 너로써는 힘들고 슬픈 일이니까 울지 않을 수는 없다. 울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근데 뭐 혼자 방에 틀어 박혀서 혼자 울지는 말아라. 하느님이 너한테 우리 가족을 주셨고, 엄마를 주신 거는 혼자 울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말해요. (#14)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입양에 대해서 파악하고 버려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지나갈까 그게 조금 염려가 되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잘 이겨낼 것 같아요. (#2)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회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고 대처하며, 바람직한 입양인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입양아에게 입양에 무지한 사람들과 사회의 편견에 대해 알려주고, 입양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입양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입양을 공개하며 입양 가족행사를 통해 입양을 홍보한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기도 한다(#4, 8, 9, 10, 12, 13).

"니네 엄마가 친엄마 아니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친부모 할 때 친자는 친할 친자야. 난 우리 엄마하고 친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진짜야. 낳은 엄마도 진짜고 지금 엄마도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친구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8)

입양을 홍보해서 30가정 정도 입양가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나 만나고 나면 입양해야지 이래. 그러다가 집에 가서 어머 무슨 생각을 한거야 이려고. (#9)

#### IV. 결론 및 의의

##### 1. 논의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입양을 결정하기, 입양가족으로 적응하기, 입양가족의 어려움 극복하기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입양을 결정하기에서 나타나는 하위범주는 입양동기, 입양선택의 어려움, 공식적인 입양절차였다. 입양동기는 요보호 아동에게 부모의 사랑과 가족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동기를 갖게 된 배경에는 입양관련 대중매체, 주변사람의 입양경험공개, 고아원자원봉사경험, 위탁모경험 등이었다.

입양을 결심 후 이들은 입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수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입양이 허락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전통적인 혈연주의 사회에서 핏줄을 중요시하는 가족문화와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양가부모와 친척들, 주변 지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입양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양가부모와 친척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양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엄격한 부모자격심사과정을 통과한 후 입양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입양기관의 절차상에서 입양수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다. 또한 입양기관에서 친생자가 있는 가족의 입양에 대해 친생자와 입양아와의 차별을 걱정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입양을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친생부모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입양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주목 할 점은 참여자들의 입양에 관한 성숙한 태도이다. 이들은 친생자가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부의 행복을 위해 입양을 하는 불입가족의 입양동기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을 위한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입양아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입양을 염두에 두었고, 혈액형이나 신체조건 등의 일치에 상관없이 입양을 하였다. 또한 입양을 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에게 입양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건강이 의심되어 입양이 연기되거나, 친권이 상실되지 않아서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를 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친생자가 있는 가족의 입양목적에 대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건전한 교육과 양육을 위한 이타주의 또는 사회적 인도주의 실천에 근거한 동기를 가지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적 목적으로 입양을 선택한다는 최지희(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입양가족으로 적응하기에서 나타나는 하위범주는 애착관계의 형성, 입양자녀의 양육, 부부관계의 변화, 형제관계의 변화, 확대가족관계의 변화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적응과정을 겪게 된다. 이들은 입양초기에 낮은 환경과 양육자의 교체로 인해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표현하는 입양아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양육의 힘들음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입양아가 심리적으로 안정하도록 밀착해서 양육하며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애착형성과정으로서 입양아와 친생자는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입양아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생아기에 형성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양부모는 아동과의 유대감을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Brodzinsky et al., 1998, 2004)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신생아기에 입양된 입양아와의 안정애착으로 인해 입양아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부모 자녀관계에서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성장하였다. 또한 입양 당시의 연령이 입양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진 연구가(McKenzie, 1993)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신생아가 아닌 연령이 높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부모가 입양아와 애착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입양에서 연장아 입양을 한 경우(#2, 5, 7, 8, 13)가 있었는데 신생아입양과 다름을 표현하며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였다.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연장아의 경우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연장아가 되기 전에 입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모는 입양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양육에 전념한다. '입양'이라는 특수성이 친생자의 양육방법과는 달리 입양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입양아의 발달과 성장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을 위해 입양에 대해 공부를 하고, 부모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입양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입양 전 부모교육으로 인해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입양된 아동과 성숙된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입양 후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입양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입양 전 뿐만 아니라 입양 후의 '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입양아를 양육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입양아의

변화와 성장으로 보람을 느낀다. 입양이 주는 기쁨이 크고, 입양아에게 힘이 되는 동지를 만들어 주기위해 재 입양을 하였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연구참여자 열다섯 가족 중 열한 가족이 재 입양가족이며, 그 중 네 가족(#2, 5, 8, 13)은 세 번 이상 입양을 하였다. 지난해(2009) 홀트 재단을 통해 이뤄진 국내입양은 모두 428건으로 이 중 50여 건은 두 자녀 이상을 받아들이는 재 입양가정이며 이중 세 자녀 이상 입양도 7건에 달했다(홀트아동복지회, 2009)는 것은 입양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공개입양가족으로 입양부모는 입양아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입양이 된 이유와 생모에 대해 공개하며 '뿌리 찾기'를 돕는다. 이로 인해 입양아는 어렸을 때부터 입양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였고, 생모에 대해 질문을 하며 궁금해 한다. 입양아는 생모를 찾고 싶어 하지만 참여자들 중 대부분의 가정은 입양아가 성장한 후에 함께 찾아볼 것을 약속하며, 생모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알려준다. 참여자들 중 두 가족(#4, 13)이 적극적으로 궁금해 하는 아이와 함께 입양기관에서 생모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한 가족(#12)만이 실제로 생모를 찾아서 일 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난다. 이것은 입양아의 뿌리 찾기가 진행되는 동안 입양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아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는 국내의 공개입양부모의 72.6%가 미혼모와 입양부모의 교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류방법은 미혼모에게 입양아가 잘 자라고 있음을 홍보하거나 친생부모의 정보를 얻는 것을 택했다고 밝힌 변미희와 백경숙(2001)의 연구에 의해서도 잘 증명된다. 입양아의 뿌리 찾기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개입양은 아직 불완전하다. 따라서 입양기관에서 입양아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입양부모에게 알려주며, 입양부모도 아이를 위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 아동이 중심이 되는 공개입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입양 전과 달리 입양 후에 돈독해진 부부관계를 경험하였다. 입양부모의 입양 당시의 연령을 보면 40대 전·후반의 중년기이다. 중년기 부부들은 발달주기 상 가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장에 직면하게 되며,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의 역할이 감소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중요한 하위체계로 부상하는 시기(Anderson & Sabatelli, 1999)이다. 이들은 40대 전·후반의 중년기에 친생자를 낳은 지 5년~19년이 지나 입양을 하였다. 친생자가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었기에 부부관계가 중요한 중년기의 입양부부에게 입양아는 이들을 다시 신혼의 기간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입양 후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로 인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 이정순(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녀양육기에 부부가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우 자녀양육스트레스도 덜 느끼고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기 전보다 나빠지지 않고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Emery와 Tuer(1993)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부부가 성공적인 입양자녀양육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새로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친생자와 입양아간에는 부모의 차별로 인한 갈등이 없고, 친밀한 형제애가 형성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입양부모와 나이가 많은 친생자는 나이가 어린 입양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입양경험이 친생자에게 좋은 교육이 되어 생각이 성숙해지고, 입양부모는 입양아에게 힘이 되는 동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재 입양을 한다. 그러나 입양당시 친생자의 나이가 유아기시기이며, 친생자와 입양아의 연령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9, #10, #12)에는 친생자가 입양아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며 퇴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친생자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를 회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령차이가 나지 않는 친생자 간의 형제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친생자가 있음으로서 입양아를 더욱 잘 양육할 수 있었고, 친생자와 입양아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입양으로 인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오직 친생자만 있는 가정과, 입양아와 친생자가 함께 있는 가정, 오직 입양아만이 있는 가정을 비교한 연구에서 친생자와 입양아가 함께 자라는데 어떤 적응의 문제도 없었으며, 오히려 입양아에게 더욱 긍정적이었다는 Ternay 등(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친생자가 있을 경우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입양부모가 이 두 형태의 자녀들을 차별하게 되거나 친생자가 입양아를 입양했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괴롭힐 것이라는 편견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유자녀 입양가족의 확대가족은 입양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한다. 출산을 통한 가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 친정식구들은 이들이 고생할 것에 대해 걱정하며 반대를 하고, 시댁식구들은 전통적인 혈연주의로 남의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강하게 반대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확대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입양을 한 후 참여자들이 확대가족과의 관계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쌓이게 되고, 확대가족은 입양가족을 격려하며 입양아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실제로 입양가족에게 확대가족은 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보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가족이 주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입양가족은 긍정적인 시각을 확장하거나 가족구성원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더욱 활발한 문제해결노력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다(권지성,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과거 대가족시대에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변화되면서 가족구성원도 변화되고 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지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부모와 자녀의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국제결혼, 재혼, 이혼, 한 부모, 기러기아빠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모 자녀관계에서 혈육만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높은 선진의를 함양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특히 유아기관이나 학교에서 편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혈연가족 뿐만 아니라 입양가족, 조손가족, 편부모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이 있음을 가르쳐서 입양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입양가족이 더 이상 낯설거나 다른 가족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어 편견이나 차별을 우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입양가족의 어려움 극복하기에서 나타난 하위범주는 입양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들은 입양을 결정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입양아의 열악한 태내환경으로 인하여 장애발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다. 미혼모인 입양아의 친생부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태중의 아기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임신 사실을 알지만 임신 사실을 숨기고,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질타를 받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태중의 좋지 않은 경험이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한다. 참여자들은 낙태를 하지 않고 입양아를 낳아준 미혼모에 대해서 측은함과 함께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낙태를 쉽게 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위해 낙태를 하지 않고 낳기로 선택한 미혼모를 존중해주어 이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미혼모 자신이 양육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인 보호나 경제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낙태가 줄어들게 되고,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입양아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인지하는 입양됨의 의미가 변화되어 내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입양가족은 입양아가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의 아픔, 사춘기의 정체성혼란에 대한 걱정,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입양공개로 인한

난처함, 또래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들은 입양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입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비하며 노력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결단을 하면서 불안함을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혼란에 대한 걱정에 대처하기위해 입양아를 신뢰하며 그들이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양육한다.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족의 결속력으로 이겨내고, 입양아에게 입양에 대해 무지한 타인과 부정적인 사회인식에 대해 교육하며 또래관계에서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대처한다.

입양모는 입양아가 입양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밝고 당당하게 자라길 기대한다. 이들은 입양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기위한 노력으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 입양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상황, 배경, 정보 등에 대해 궁금증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궁금증과 고민, 갈등은 입양부모 자녀간의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은 아동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녀 간의 입양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는 입양아의 긍정적인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양부모 자녀간의 입양관련 의사소통은 입양아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솔직하고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모는 입양아의 생각을 지지해주며, 스킨십을 통해 입양아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한다. 따라서 입양기관의 입양부모교육 시, 입양부모들에게 가족구성원 간에 입양관련 의사소통 증진과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위한 전문적인 입양사후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성공적인 입양을 위해 입양가족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입양가족모임이 입양부모와 입양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며, 서로가 힘이 되고 동지가 되어주어 정서적으로 의지가 된다. 이것은 입양가족이 아직은 소수집단으로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조모임들이 입양가족들에게 주류문화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권지성(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입양가족의 적응에 있어서 자조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는 입양가족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도록 필요와 중요성을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요보호아동의 입양과 입양가족의 삶을 위해 입양을 홍보하고 있다. 자신의 입양경험을 공개하기도 하고, 입양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입양인식을 전환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입양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입양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양홍보는 입양기관과 입양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해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입양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홍보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행사개최를 통해 입양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해 홍보를 하여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의의

유자녀 입양가족 어머니의 입양경험에 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입양가족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입양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준다. 입양아는 친생자와 동일하고, 혈연관계를 넘어 사랑으로 융화되는 가족의 경험을 통해 '입양아는 친생자처럼 키울 수 없고 입양아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편견을 부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신생아기에서 아동기까지 입양아를 양육한 입양가족의 삶의 경험은 예비 입양가족에게 의미있는 직접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입양아의 발달주기에 따라 입양가족의 변화되는 삶을 이해하고 입양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예견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입양가족의 필요와 욕구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한다. 입양가족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입양가족을 위해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구미향(2006).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 분석. **한국아동학회**, 27(3), 117-133.

권지성(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입양 홍보회 참여가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지성(200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복지학**, 7(2), 35-50.

권지성 · 변미희 · 안재진 · 최운선(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1(23), 71-102.

박경련(2007). 한국사회에서의 입양부모들의 입양공개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태순(1993).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

**아동복지학**, 1(1), 1-22.

배태순(1998).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

변미희 · 백경숙(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 ·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아동관리연구**, 5(2), 31-48.

변미희 · 정혜선(2006). 예비입양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복지학**, 11(2), 83-101.

보건복지부. stat.mw.go.kr.

송희연(2005). **입양가족의 적응과 공개입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공개입양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재진(2008). **국내입양가정의 초기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현선(2001). **국내입양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자조모임참가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숙 ·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이은경(2001). **국내입양실태와 사후관리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2003). 유아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83-199.

이현정(2001).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맹진(2002).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효정(2008). **공개입양가족의 입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공개입양어머니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희(2001).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희(2003).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동수(2001). **입양아의 입양당시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및 역할 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명순(2003). **공개입양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홀트아동복지회. www.kostat.go.kr.

황재필(2005). **국내입양가족의 입양방법에 따른 가족 적응**.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derson, S., & Sabatelli, R.(1999).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2nd ed.)*.

-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rodzinsky, D. M.(1990). A stress and coping model of adoption adjustment. In D. M. Brodzinsky. & M. D. Schechter.(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3-24).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dzinsky, A. B.(1998). 안재진 역(2004). *입양아동의 적응*.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 King, M.(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mery, R. E. & Tuer, M. (1993). Parenting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121-148). Hillsdale, NJ: Erlbaum.
- McKenzie, J. K. (1993). Adop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 Future of Children*, 3, 62-76.
- Rosenberg, E. B. (1992). 이윤로 · 이미선 역(2007). *입양의 생애주기*. 서울: 신정.
- Ternay, M. R., Wilborn, B., & Day, H. D. (1985). Perceived child-parent relationships and child adjustment in families with both adopted and natura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 261-272.

접수일 : 2011년 04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19일